

북부권 주요도로 개통 교통체증 해소

전주시, 확장 공사중인 혁신로·동부대로 등을 상반기 내에

기존 자동차 중심의 전주시 북부권 주요도로가 차도 확장 및 인도 설치로 교통체증이 없고 걸기 좋은 도로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혁신로 확장공사와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체증 해소와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도로건설 사업을 조기에 완공,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혁신로 확장사업은 동산동과 조촌동 등 주변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차량통행이 불편한 호남제일문에서 동산고교까지 1km 길이의 혁신로를 확장하고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112억원에 투자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로 확장공사는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015년 공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현재 인도와 차도포장(7차로)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조경공사와 전기공사 등 잔여공사를 오는 4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5월 중 혁신로를 전면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동부대로 확장사업(송천동 메가월드~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연장 3.0km)의 경우, 예코시티 개발에 따른 호성동과 송천동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18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송천동 메가월드에서 대송장례식장(연장 2.0km)까지 확장공사를 완공했으며, 현재 미확장 구간(대송장례식장~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등) 설치를 완료하고 인도포장(보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중에 인도포장과 차도포장으로 포장, 차도포장 및 전기공사 등을 거쳐 동부대로를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특히 동부대로 확장사업은 지난 연말 완공된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예코시티의 기반시설 확충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새해맞이 준경묘지 참배

정유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전주시 승암산에 있는 전주준경묘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신년 준경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시는 태평동 대신중권 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우신히말사거리에 이르는 대동로 78m 구간도 오는 9월까지 기존 폭 15m도로를 25m로 확장할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혁신로 확장사업과 동부대로 확장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동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1월 중 조기 발주해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로건설사업 시 무엇보다 사람이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서, 첫 여성 파출소장 3명 배출

- 나애란 팔복파출소장
- 강미경 혁신파출소장
- 윤혜성 호성파출소장

이번에 임명된 윤혜성 호성파출소장은 86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완산서 정보계, 덕진서 의사계장 등을 역임해 왔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가 전북지역 최초로 동시 3명의 여성 파출소장을 배출했다.

지난해에 임명된 나애란 팔복파출소장과 강미경 혁신파출소장에 이어 덕진서는 윤혜성 덕진서 의사계장을 호성파출소장으로 임명하며 1급서 첫 동시 여자파출소장 3명을 탄생시켰다.

윤혜성 호성파출소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 치안 최일선 현장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경찰행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신청 접수

시내 거주 무주택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전주시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2000만원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또는 LH에서 저소득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로 확정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시는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대상 가구에 입

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총 805가구에 34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한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년전주 콜센터(063-222-1000)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063-281-244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전북경찰청-완산서, 시무식 후 본격 업무 돌입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완산경찰서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은 오전 10시 전북청 1층 대강당에서 조희현 청장과 전북경찰지휘부를 비롯해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영상시청, 경찰청장 신년사, 경찰가계창, 직원들과의 신년

약수 순으로 시무식을 진행했다.

조희현 청장과 지휘부는 시무식에 앞서 전통소제 낙수정 준경묘지를 찾아 참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완산경찰서 역시 오전 10시 완산서 5층 강당에서 강홍수 경찰서장과 각 과장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민근 기자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경찰청장의 신년사를 들으며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강홍수 경찰서장은 시무사를 통해 "우리 완산경찰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평온한 치안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완산경찰은 예방치안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신년인사회 개최

전주시의회는 2일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의정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김명지 의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정유년 새해에는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년의 마음가짐으로 더 큰 역사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다"며 "전주시와 함께 어떤 정책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인지 심사숙고한 뒤 최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전주시는 올해 U-20 월드컵 개최, 예코시티 개발, 전라강영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굵직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생·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준경묘지 참배에 나섰으며 다음달 새해 첫 임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북 연 교통사고 사망자 300명 미만 줄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 미만으로 줄어 들었다.

지난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6년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93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96년 1,009명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년만에 200명대에 진입하게 됐다.

경찰은 11년 361명으로 최초 사망자 300명대에 진입 한 이후 3년간 담보 상태를 계속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션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행해 왔다. '미션 300'을 통해 교통

사고 사망률이 높은 노인과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음주운전을 집중 관리하고 사고가 잦은 교차로 166곳과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 192곳을 선정해 기동대와 상설중대를 동원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또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고위험 구간 간이중앙분리대 157개소 49.7km 및 횡단보도 410개소를 설치하고 야간 운전자의 시안성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투광기 251개소를 확대 추진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김민근 기자

땅굴 파 석유 1억원어치 훔쳐 판 50대 징역 2년

치밀한 준비로 땅굴을 파 석유 1억원 어치를 훔쳐 판매한 5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일 유류소 근처에 매설된 송유관을 노리고 땅굴을 파 석유를 훔친 김모씨(53,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 5명은 지난 2014년 5월부

터 2개월간 전남 곡성소 소재의 한 주소 근처에 매설된 송유관을 노리고 길이 25m의 규모의 땅굴을 판 뒤, 유압호수와 압력계 등을 설치해 석유 6만2,000l(시가 1억 800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완전범죄를 위해 기계 설치, 땅보기, 폐기를 처리 등 조직적으로 임무를 분담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